| 현불 논단 |

폭염과 한국불교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올해 역대 폭염 기록에 모두 허둥지둥
남북관계 · 경제상황, 꽉 막힌 소식뿐

조계종 상황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탐진치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수행자의 자세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작금 상황, 한국불교가 만들어낸 공업
현 사태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폭염도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다

더위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다. 우리 선조들은 더위보다 추위를 무서워했다. "춥고 배고프다"라는 말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어귀였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폭염의 쓰나미 앞에 모두 허둥지둥이다.

8월 15일까지 폭염 피해의 발표를 보면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모두 48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농산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돼지, 닭 등 가축 457만 마리가 폐사되었고, 양식장의 피해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한다. 사람의 먹이로 키워졌다가 더위에 죽어가는 축생과 물고기들의 시신을 보면 이 업을 어이할꼬 하는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 폭염을 피할 시원한 그늘이 없으니 이를 어쩌랴.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시원하게 뚫릴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순진한 기대였던가를 알게 되었다. 또한 자영업자는 장사 못하겠다고 한탄이고, 청년 실업의 문제는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도 불안하다고 한다. 다 이렇게 꽉 막힌 소식뿐이니 이 더위에 더욱 숨이 막힌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불교인들을 숨 막히게 하는 것이 있으니 조계종단의 내분과 혼란이다.

조계종단의 내분과 혼란은 붓다의 제자들을 실망케 하고, 분노케 하고 그리고 슬프게 만든다. 붓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보인다. 붓다 가르침의 핵심은 탐진치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탐진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리라.

붓다 재세 시의 승가 집단에서도 탐진치로 인한 승가내의 여러 문제로 붓다의 고뇌하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치열한 수행을 하는 것이다. 탐진치의 고해 바다에서 침몰되지 않으려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단의 다툼에 수행자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종단의 현장을 보고 있는 많은 수행자와 재가불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다. 심산 사찰에서 하안거하는 많은 수행 스님들,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고군분투하시는 전법 스님들, 붓다의 가르침을 만난 기쁨에 환희하는 많은 재가불자들. 이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울까?

불교의 업사상에 공업(共業)이 있다. 공업은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집단내의 구성원에게 공통하는 업이다. 오늘의 조계종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제도, 그리고 관습에서 유래된 문제에서 출발되었다고 본다. 즉, 오늘의 한국불교가 만든 공업에서 나온 것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에서 나오는 구절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를 상기해 본다. 오늘 조계종단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쩍새의 피나는 울음이 되기를 바란다.

21세기 지구별은 지구인들이 지은 공업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이번 여름에 겪고 있는 고통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지구인의 공업의 결과다.

이러한 지구별의 위기 속에서 붓다의 진리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의 사명도 커지고 있다.

이번 종단 사태가 한국불교가 새롭게 재탄생되는 촛불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되면 그까짓 폭염이야 얼마든 견딜 것이다. 이제 폭염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불교계 호스피스 상담 확대 필요

사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6개월 차를 맞았다. 6개월간 전국에서 4만3000여 명, 서울지역에서 2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사전에 신청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이중 불치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한 연명치료로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생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연명의료계획서를 받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 연명의료 중단은 호스피스 의향을 밝힌 것과 같다. 호스피스 관계자들은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병마로 연명치료를 받게 되면 이를 중단하는 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가 없을 시 가족 등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결정의 책임이 넘어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전국에서 4만3000여 명이 신청하고 지금도 폭발적으로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증한다.

이런 가운데 정작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전문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현재 86개가 운영 중으로 등록기관 유병별로는 의료기관 46곳, 복지재단 등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0곳, 고창군보건소를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19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이들 중 불교계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다. 등록기관이 소수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불교계 등록기관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록기관인 불교여성개발원은 8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5월 2월 상담사 등록 사전교육을 진행했고, 17명의 상담사가 등록해 활동, 총 133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담사 교육 후 등록을 통해 늦게 상담과 접수를 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서울지역 2만5000여 명의 등록 수준에 보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진다.

상담과정에서 불교계 기관에서 상담 후 등록을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불교 호스피스에 대한 사전 신청이 늘 수 밖에 없다. 임종을 앞둔 불자들에게 불교사상에 근간한 웰다잉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또 남은 불자가족들에게 불교적 삶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불교계 기관들의 활발한 동참이 필요하다.

불교계에는 장기기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 등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으며 동국대 병원 등 종립병원 또한 있다. 기존 불교계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록기관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는 죽음, 특히 웰다잉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어느 종교보다도 생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 불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社說

청정 선거로 위기를 넘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8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임을 내려놓고 산중으로 돌아갔다. 취임일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294일만이다.

설정 스님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인준이라는 불명예만은 피하려 했으나, 8월 22일 법적 다툼 예방을 목적으로 원로회의는 불신임을 인준했다.

결국 설정 스님은 불신임이 인준된 첫 총무원장으로 종단사에 기록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총무원장 대행체제로 접어들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혼란스러운 현 정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무원장 대행을 맡은 진우 스님이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중앙종회는 9월 6일 임시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일자를 9월 28일로 확정지었다.

이제 조계종은 선거를 통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 간선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정 진제 스님이 교시를 통해 현재 종헌종법 내에서 차기 원장을 선출할 것을 당부한 만큼 종도들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현재 위기다. 불자 수 감소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여 동안 불교와 대표종단 조계종의 위상은 바닥을 쳤다. 이제는 구태인 '프레임' 정쟁은 의미가 없다. 감정싸움과 비방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불거진 금품살포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불교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조금만 실수하면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바르고 청정한 선거로 새롭게 종단을 이끌 인재가 선출되길 바란다.

참선 대중화에 거는 포교 '기대'

불교계가 10년간 잃어버린 300만 불자를 되찾기 위해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참선' 대중화에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내달부터 일반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1기 참선아카데미 대강좌'를 운영키로 했으며, 제주 원명선원은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참선 수행체험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참선이 갖는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져만 가는 요즘, 참선이 불교사상과 수행의 요체를 대중에게 얼마큼 잘 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현재 전 세계에는 소위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오프라인 명상 시장의 경제적 규모는 1조3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대표적 명상앱 '헤드스페이스(Headspace)' 매출액은 약 500억 원, 기업가치는 2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마음챙김 앱인 '마보' 또한 상용화 단계에 성공적으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명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지만 불교계로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명상시장의 확대가 '종교색 배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만으로도 불교의 정수를 전파하고, 개개인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불교계가 참선 대중화에 나선 일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참선이 대부분 치유와 마음챙김 목적으로 활용되는 명상을 넘어 사성제와 팔정도를 체험하게 해 '완전한 내려놓음'으로 대중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